

綠色바람과 北漢山국립공원의 美下士官訓練場

오 판 용
(한국국립공원협회 사무국장)

洛東江페놀汚染사건의 소용돌이(89년에 이미 光陽灣 漁貝類떼 죽음의 主因이 H精油서 배출된 페놀 등 工場廢水였다는 것이 判明됐으나 全國的 淨化시설개선 않는데서 온 것)가 지나자 全國民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됐다.

가정에서도 主婦들 스스로가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데 연구를 하며 “環境을 망치면 다 함께 죽고만다”는 강렬한 인식을 지니게 됐다.

럭키·愛敬·무궁화유지 등 洗劑업체들은 水質汚染이 적고 물에 잘 分解되는 비누의 開發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으며 新世界百貨店은 日光과 미생물에 의해 自然分解되는 공해防止비닐쇼핑백을 사용하는 등 앞다투어 「녹색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내무부를 비롯하여 환경처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벌써부터 「一社一山가꾸기」운동을 권유해왔는데 최근들어 부쩍 호응도가 높아 환경처서는 今年末까지 목표를 888개山으로 잡아둘 정도다.

企業이미지를 크게 높일수 있는 「一社一山가꾸기 운동」은 現在 2百餘企業들이 各各하나의 山을 맡아 쓰레기 淸掃와 造林사업까지 활발히 推進하고 있음은 고마운 일이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製品과 廣告, 社報에 환경보호文句와 국민생활수칙 甞기등으로 「그린마케팅」戰略을 펼치고 있는 듯 하다. 신제품 모두를 매거하긴 어렵지만 보도에 의하면 ▲럭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플레온카스 代身 LPG 사용한 “피오레”무스개발과 “차밍”무스의 분사제도를 LPG로 대체. ▲斗山제관은 쓰레기 汚染감소와 再生의 도움을 위해 맥주강통따는 방식을 떼어내기에서 밀어넣기로 개선등 “그린 테크노로지”化되는 길이 시

급하다. ▲국민카드여행사는 6월의 한라산 철쭉제 관광때 쓰레기 줍기 大會를 개최하는 녹색관광商品을 개발(당국은 山祭등 폐지·축소 方針이며 허가는 자연보호활동조건부) 관광객에게 환경정화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 이미지와 共感帶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식의 山祭許容은 山祭를 부추키는 結果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山頂서의 集團山祭는 踏壓에 의한 自然훼손이 가장 甚한 利用行態이므로 尙조리 禁止시켜 마땅하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나 각기관 단체들이 보다 밝고 깨끗함을 원하는 綠色 바람 提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에 이르도록 1천만명이넘는 서울市民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北漢山국립공원의 西部管理所(소장 鄭裕熙)관내 세칭 「다락원골」(議政府市 호원동)에 있는 美下士官學校訓練場은 누가 許可한 것인지 모르나 하루 速히 訓練場을 公園區域밖으로 옮기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學校건축物은 公園區域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온갖 銃彈과 訓練場의 참호가 국립공원內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綠色운동을 沮害하는 암的 存在이기에 관계당국은 이의 이전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측문한바 4~5년전에 생긴 것이라 한다.

우리와는 血盟의 關係인 美國 軍隊가 許可도 없이 國立公園內에서 후안무치하게 訓練場으로 쓸 까닭이 없다고 믿는다.

一社一山운동에 호응하여 問題의 미군하사관 훈련장을 옮기게 하는 국립공원 愛護운동은 한미친선의 次元에서 이를 許可한 官과 美側에서 말아주기를 強力히 主張해둔다.